

제13대 전주시의회 당선인 36명 확정

민주 26석 · 혁신 5석 · 진보 1석 · 무소속 4석 차지... 내달 1일 13대 의회 개원

제13대 전주시의회에서 시민을 위해 4년간 봉사할 당선인 36명이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4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구 의원 32명과 각 정당 비례대표 의원 4명 등 모두 36명이 당선됐다.

새로 의회에 입성하게 될 당선인은 17명이며, 12대 의회에 이어 의원석을 자기게 된 인물은 19명이다.

정당별 당선인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조국혁신당 5명, 무소속 4명, 진보당 1명 등이다.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3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당선인은 김수민(38), 정승인(44), 유시선(56) 후보다. 조국혁신당은 1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했다. 당선인은 이수진(36) 후보다.

성별 당선인은 남성 24명, 여성 12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 2명, 30대 11명, 40대 6명, 50대 9명, 60대 이상 8명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가선거구와 라선거구, 마선거구의 김운철, 최명철, 김현덕 당선인은 5인으로 최다선 의원의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다.

마선거구의 김현덕 당선인은 70세로 최연장자, 타선거구의 신유정 당선인은 26세로 최연소 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선인 신 당선인은 4년 전 선거 때도 최연소였다.

지역구 별로 가선거구(노송, 인후1·2·3동)는 최용철(민주, 3선, 50), 김운철(민주, 5선, 69), 채민석(혁신, 3선, 30), 나선거구(중앙, 풍남, 완산, 중화

산1·2동)는 장병익(민주, 재선, 37), 조우영(혁신, 3선, 64), 이봉문(민주, 3선, 50) 후보가 당선됐다.

다선거구(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는 김경명(민주, 재선, 47), 양영환(무소속, 4선, 66), 이남숙(민주, 3선, 64), 최주만(민주, 4선, 68) 후보가 당선자의 영광을 안았다.

라선거구(서신동)는 최명철(민주, 5선, 69), 최영심(무소속, 3선, 56), 마선거구(삼천1·2·3, 효자1동)는 진예찬(민주, 3선, 32), 김동현(민주, 3선, 38), 김현덕(무소속, 5선, 70) 후보가 당선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바선거구(효자2·3·4동)는 전준미(민주, 재선, 50), 채영병(무소속, 3선, 53), 김성규(민주, 재선, 48), 사선거구(효자5동)는 이상국(민주, 재선, 32), 흥대규(혁신, 3선, 54) 후보가 당선됐

다.

아선거구(진북, 금암, 덕진동)는 김운수(민주, 3선, 43), 최서연(민주, 재선, 20), 자선거구(팔복, 송천2, 조촌, 여의동)는 은영표(민주, 3선, 60), 최지은(민주, 재선, 48), 경현철(혁신, 3선, 49) 후보가 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차선거구(우아1·2동, 호성동)는 신동이(민주, 3선, 39), 온혜정(민주, 3선, 50), 카선거구(송천1·3동)는 김인철(민주, 3선, 37), 최한별(진보, 3선, 34), 최명권(민주, 재선, 55), 타선거구(혁신동)는 신인철(민주, 3선, 35), 신유정(민주, 재선, 26) 후보가 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당선자들은 내달 1~3일 제13대 전주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정단 및 상임위원단 선출을 시작으로 시민을 위한 4년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도서관, 여름철 야간 연장 운영

연화정도서관 · 아중호수도서관 · 12개 시립도서관 등 운영 확대

전주시 도서관이 시민들과 여름철 관광객을 위해 야간 연장 운영을 확대하면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전주덕진공원 내 연화정도서관이 여름철 연꽃 개화 시기에 맞춰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하계기간 평일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7시까지에서 2시간 연장된 오후 9시까지로 확대 운영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연화정과 벽진폭포 일원에서 화려한 빛의 하모니를 담은 프로젝트 맵핑 야간 미디어콘텐츠 '연화정에 내린 별들의 이야기'가 상영돼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한다.

단, 연화정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인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연장 운영 기간에도 동일하게 휴관한다.

또한 아중호수도서관도 지난 3월부터



더 오는 10월 오후 9시까지 야간 연장 운영을 통해 퇴근길 직장인과 청년층, 야간 산책객들이 늦은 시간에도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에코시티에 위치한 에코도서관(평일 오후 10시까지)과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청소년자료실(평일 오후 9시까지) 등 지역 작은도서관의 야간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12개 시립도서관의 자료실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시간 제약 없는 독서 환경을 구축했다.

/권희성 기자

전국 독립출판인 열광한 '전주책페' 온다

전주형 독립출판 북페어, 7월 17~18일 문화공판장 작당 · 로컬공판장 모이장서 개최

전국 독립출판인과 독자들이 책의 도시 전주에 불러온다.

전주시는 오는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전주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 및 로컬공판장 모이장에서 전주형 책 박람회인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이하 전주책페)'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전주책페'는 걸어 다니는 서점이라 불리며 전국 방방곡곡 책을 팔던 조선시대 서적 중개상 '책판'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전주의 고유한 역사성에 전국 독립출판문화를 결합한 북페어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전주책페는 '전국 서포를 품고 책페가 온다'를 주제로 조선시대 후기 완판본을 직접 손으로 찍어내고 유통하며, 전주만의 고유한 책문화에 앞장선 서포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서포(書舖)'는 서점의 옛 말로, 책 판매뿐 아니라 출판을 통해 지역의 존재를 드높인 책문화 거점을 의미한다.

특히 건물 2층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진행되는 전주책페는 올해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자와 출판사, 동네 책방 등 무려 501팀이 신청해 전년 대비 신청팀이 약 57% 늘어나며 눈



전주시는 오는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전주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 및 로컬공판장 모이장에서 전주형 책 박람회인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전주책페 모습.

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94팀이 최종 참가를 확정 지었으며, 일 본을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전국 프리미엄 북페어로서의 위상을 나타냈다.

또한 건물 1층 로컬공판장 모이장에서는 전국에서 초청한 지역서점 36팀이 모여 각 서점이 큐레이션한 도서 추천과 판매를 비롯해, 서점지

기와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인생서점 생애주기 체험프로그램' 등 독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점 북페어'가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주책페를 '서점과 함께 뛰는 책페'를 모토로 차별화된 차별 공간 콘셉트로 운영하며, 북페어 속에 북페어를 품은 새로운 형식으로 전국 책페 부스와

지역서점 부스를 전층으로 오가며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책 박람회를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에, 전주의 옛 서점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포의 방'도 함께 운영된다. 조선시대 후기 전주 천변과 사대문에 위치했던 서포에서 직접 찍어낸 완판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로, 전주만의 깊이 있는 책문화와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정시로 꾸며질 예정이다.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주요 강연은 △강현경 원앤그레이블루 대표의 '독립출판 프리랜서의 어떤 하루' △김주은 신대 대표의 '책방 10년, 졸업식 그 후' △이여로 작가의 '북페어를 탈출하는 방법: 판매 너머의 1인 유통을 상상하다' △육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책이 머물고 떠나던 곳, 서포의 발자취' △호재 북셀러 대표·최창근 한가네 서점 대표의 '대구와 전주, 두 현책방 주인의 말' 등이다.

이처럼 올해 전주책페는 기존 문화공판장 작당 뿐만 아니라 건물 1층 '로컬공판장 모이장'까지 공간을 확장하고, 참여팀을 130팀으로 대폭 확대해 한층 더 풍성한 북페어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국 각지의 매력적인 출판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독자와 관람객 모두가 윈윈하는 북페어로 두 개의 북페어를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민낯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 가족 문화의 날 영화 관람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4일 메가박스 전주객사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160명을 대상으로 '가족 문화의 날' 영화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문화 활동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 향상과 정서적 유대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드림스타트 가족들이 안

전하고 쾌적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관 3개를 통째로 대관하고, 팝콘과 음료 등 간식도 함께 제공해 즐거운 관람 분위기를 더했다.

함께 관람한 영화는 일본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판타지 영화 '이상한 과거가게 전현당'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과거가게를 배경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따뜻한 가족 영화다.

/권희성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살퍼서 대피' 지속 홍보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공동주택 화재 위험에 대비해 공동주택 화재 피난용동령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화재에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밖으로 대피하기보다 화재 위치와 주변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행동하는 "살퍼서 대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계단을 이용해 즉시 대피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탑승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또 연기 확산 방

지를 위해 현관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한다.

반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간막이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문틈을 찢은 수건 등으로 막은 뒤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웃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집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연기 유입이 없다면 창문을 닫고 집 안에 머물며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연기가 유입될 경우에는 복도 상태를 확인한 뒤 대피가 가능하면 비상층으로 이동하고,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찬 경우에는 집 안 대피공간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